MÉXICO
한인신문
2022.11.07 월요일
PERIÓDICO COREANO EN MÉXICO
www.haninsinmun.com
haninsinmun
haninsinmun@gmail.com
55 5522-5026 / 55 5789-2967
창간 2008년

상원, 근로자 유급휴가 두 배로 늘리는 법안 만장일치 통과

52년만에 늘어나는 휴가기간에 멕시코 근로자들 대환영, 기업들은 비용부담에 난색

지난 목요일 멕시코 상원은 연방 노동법을 수정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차 이후 연차유급휴가가 현재 6일에서 12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Vacaciones Dignas Ya"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2년차 되는 다음 해부터 매년 2일씩 늘어나 첫해 12일에서 2년차 14일, 3년차 16일, 4년차 18일 5년차에 20일까지 늘어난 후 6년차부터는 5년마다 2일씩 늘어나게된다. 법정 최대 휴가기간은 32일 까지다.

노동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모레나당의 나폴레옹 고메즈 우루티아(Napoleon Gomez Urrutia)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휴식과 여가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에게서 일이란 완전한 삶의 많은 구성요소 중 하나이지만 마찬가지로 자기 계발을 위한 자유 시간도 필요하다" 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노동자들의 휴가 기관에 관한 현재의 법률은 52년 동안 수정되지 않아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초기 연차 휴가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세계정책분석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우간다, 필리핀, 태국과 같은 나라들과만 비교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법정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최소 18일 휴가

기간 제공을 권고한 것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멕시코 근로자는 근무 첫해부터 브라질이나 파나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 거의 4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야 가능하다.

동시에, 세계보건기구는 멕시코가 일과 관련된 수준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통계는 멕시코를 노동 시간이 가장 높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회원국 중 하나로 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와 일치한다.

이번 상원의 근로자 휴가기간 대폭확대 법안은 시민운동당 상원의원인 Patricia Mercado가 지난 9월에 제안하면서 사회적 큰 관심사을 불러 일으켰으며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하원에서는 법률상 상충되거나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 여부를 심의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송달하면 대통령의 공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통령의 공표로 법이 시행될 경우 멕시코는 ILO의 권고 사항에 더 가까워지고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Gomez Urrutia 위원장은 "당면한 문제는 근로자가 더 나은 임금과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분위기라면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법적 효력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내년(2023년) 1월1일 또는 공포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 또는 단체의 근로 계약은 최소한 내년부터는 변경된 휴가기간을 이 적용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에 더 유리한 법 적용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입장이 강해 시행 즉시 기업들은 곧바로 적용을 하게 될 전망인데 늘어나는 휴가기간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추가 인력 보충 등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소화 달러 대비 절상 2020년 이후 최고 수준

멕시코 페소는 지난 월요일 5일 연속 절상되어 2020년 이후 미국 달러 대비 최고 수준으로 마감했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목요일에 기준 금리를 75bp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페소는 월요일 거래가 마감될 때 달러당 19.45 미만에 팔렸다.

Banxico 데이터에 따르면 환율은 2020년 3월 미국 달러가 19.4페소 아래로 떨어진 이후 멕시코 통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종가 포지션이었다.

페소는 월요일에 0.36% 절상되어 지난 5거래일 동안 1.82%로 상승했지만 화요일 오전 9시 달러당 약 19.5달러까지 약세를 보였다.

Banco Base의 경제 분석 이사인 Gabriela Siller는 "현재 페소의 강세가 멕시코 은행이 다시 한번 미국 연준의 뒤를 이어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4면)

2022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5월 10일 어머니 날*
2월 07일 헌법의 날	9월 16일 독립기념일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일 망자의 날*
4월 14일-16일 부활절*	11월 21일 혁명기념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12월 25일 성탄절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8.95	살 때	1,401
팔 때	20.04	팔 때	1,377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멕시코, 8월~9월 미국의 1위 무역 교역국으로 부상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는 9월에 2개월 연속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으며 양국간 교역은 23% 증가한 67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측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 양방향 교역은 총 674억 달러였으며 이 중 거의 60%가 멕시코의 북부 국경지역에서 수출한 물량이다.

멕시코 수출은 9월에 395억 달러를 조금 넘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79억 달러를 조금 넘었다.

이같은 무역량 증가로 멕시코는 월간 무역 흑자를 거의 116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3%나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는 자동차, 컴퓨터, 석유 및 농산물인데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9월에 23.3% 증가한 반면 미국에서 수입은 22.5% 증가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기준으로 19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멕시코와 미국간의 무역량은 8월과 9월만 놓고 보았을때 그동안 최대 교역국이었던 캐나다를 앞질렀다.

멕시코와 미국은 올해 첫 9개월 동안 5,875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선적했는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기록이자 작년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멕시코 수출은 3,417억 달러(전체의 58%)를 차지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458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95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8월과 9월에 미국의 1위 무역 상대국이었지만 1~9월 기간 동안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美-中 무역은 5,268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의 3위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툴룸 공항건설, 마야 기차 구간 개통일 이번 달에 발표될 듯

차질에도 불구하고 Lopez Obrador 대통령은 Maya Train 프로젝트의 마지막 두 구간과 Quintana Roo의 Tulum에 새로운 국제 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킨타나로오 주지사 Mara Lezama, 육군 관계자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툴룸(Tulum)에서 1,500km 길이의 철도와 공항의 6구간과 7구간의 개통 날짜를 3주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구간과 공항 건설이 시작되는 날짜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시작할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軍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건설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550km의 트랙이 있는 6구간과 7구간은 툴룸에서 남부 캄페체에 있는 작은 도시 Escarcega까지 연결된다. 지난 달에 남부 Quintana Roo와 Campeche에 Maya Train 철도 건설이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6개의 대농장 중 5개의 ejidos(지역사회 소유의 토지)의 지도자들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방 환경부(Semarnat)도 공항 건설에 대해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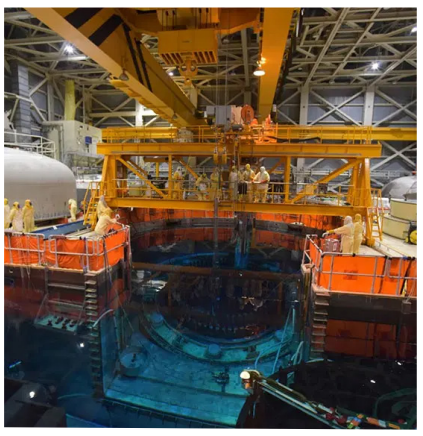
계획대로 공사일정이 추진된다면 툴룸(Tulum) 공항은 2023년 말 경에 개항을 하게될 것으로 보이며 남동부 5개 주의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관광, 통근 및 화물 철도도 내년에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미국 원자력 협정 발효로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

멕시코와 미국 간 원자력 협정이 수요일 발효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양국이 2018년에 서명하고 3월에 멕시코 상원에서 승인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협정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한 최초의 양자간 협정으로 거의 80년에 걸친 양국 간의 평화로운 핵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미국의 민간 원자력 무역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핵 물질, 장비, 부품을 수출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게 되며 멕시코와의 협정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상호 약속에 기초한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한 포괄적



인 틀을 제공하게 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멕시코와 미국 양국간의 협정으로 원자력 연구 및 원자력 생산을 위한 핵 물질, 장비(원자로 포함), 구성 요소 및 정보의 이전을 허용하게 되면서 멕시코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멕시코는 현재 국영 연방 전력위원회(CFE)가 Alto Lucero de Gutierrez Barrios의 Veracruz 시에 있는 Laguna Verde 발전소, 즉 2개의 원자로가 있는 1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CFE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말에 태평양 연안에 2개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안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28개 주에 5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Rocio Nahle 에너지 장관은 멕시코의 원자력 확장에 개방적임을 밝히면서 "CFE(멕시코 국영 전력회사)가 바하 캘리포니아에도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멕시코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Veracruz에 있는 2개의 원자로는 국제 기구가 감독하는 글로벌 안전 표준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미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지난주 멕시코를 방문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만나 재생에너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조만간 멕시코의 기후 공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으로 멕시코가 배기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원자로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발전을 위한 화석 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16개의 수력 발전소의 현대화 하고 Pemex가 메탄 가스 배출량을 최대 98% 줄이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Sonora의 Puerto Penasco에 1,0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Sembrando Vida' 고용/산림 재조림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헥타르의 땅에 과일과 목재를 생산하는 나무심기도 같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Fratelli CONSULTORES
Finanzas - Fiscal - Legal Corporativo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금융, 세금,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컨설턴트

당사만의 특별한 고부가가치의 정보제공

-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립한 세무 및 법률 컨설턴트 업체
- 멕시코 정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비지니스 솔루션 제공
- 각 기업체마다 상이한 특정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서비스 정보 제공
- 미국, 멕시코 국경 물류의 핵심 정보와 지역 프로젝트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시간엄수 / 빠른 업무처리 /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신뢰 구축

홈페이지: www.fratelliconsultores.mx

주소: Eucalipto No. 208 Poniente, Colonia del Prado, Monterrey, Nuevo León, México, C.P. 64410.
사무실: 81 252-78218 + 52 811 311 3084 이메일: atv@fratelliconsultores.mx

외무장관 "멕시코는 지금 총기 팬데믹에 빠졌다"

마르셀로 에브라드(Marcelo Ebrard) 외무장관이 "멕시코 대부분이 지금'총기 팬데믹'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Ebrard 외무장관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무기 밀매에 관한 회의에서 "당국이 2020년 초부터 거의 56,000개의 총을 압수했다" 면서 "대다수의 州에서 상당한 양의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유카탄과 오하카 같은 지역에서는 테후안테펙의 지협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총기가 발견되고 있다" 면서 멕시코 북부지역은 물론, 산간벽지에서도 밀매된 총기가 압수되는 등 지금 멕시코는 거의 전 지역에서 총기 유행병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총기가 압수된 지역은 멕시코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하나인 티후아나 였는데 3,200개 이상의 총기가 압수되었으며 거의 2,200개가 거리에서 압수되었다.

외무장관은 2020년 1월 1일과 2022년 9월 말 사이에 많은 수의 총기가 압수된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무기가 Guadalajara, Queretaro 및 Leon의 다른 세 도시에서 압수되었으며 Reynosa(865), Nuevo Laredo(862), Mexicali(794), Cancun(737) 및 Celaya(731)도 총기가 많이 압수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외무장관은 "국경 도시가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Tijuana에서 그렇게 많은 무기가 압수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면서 "미국이 멕시코로의 총기류 유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즉, 총기 밀수를 근절하는 것이 멕시코 정부가 살인을 더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Ebrard 외무장관은 작년 말에 "미국이 멕시코로의 불법 무기 유출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서 폭력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달에는 "미국 당국이 멕시코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 확인을 해야한다"고 미국측을 압박한 바 있다.

이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멕시코인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검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외무장관은 남쪽(멕시코)으로 무기의 유입을 막는 것이 북쪽(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 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멕시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정부도 행동에 나섰는데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화물 차량에 대해 일부 검문소에서는 검색이 시작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정부의 협조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 연방 정부는 매년 200,000개 이상의 총기가 미국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9월말 기준으로 982정의 총기만 압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밀매 수치에 비교했을때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멕시코 세관도 같은 기간 북부 국경 지역에서 단 416개의 총만 압수했는데, 이는 양국 당국이 12개월 동안 총 1,398개의 총기를 압수했음을 의미한다.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해 초 가진 정상회담에서 "멕시코와 미국은 2,000마일 국경을 따라 프로젝트를 위한 다년간의 미국-멕시코 국경 기반 시설 현대화 공동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전에 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혀 멕시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국경 기반 시설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은 남쪽과 북쪽 국경 프로젝트에 3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무기와 마약과 같은 불법 상품을 탐지하기위한 장비 도입과 인력보강이 포함되어 있다.

1면에 이어..

방시코(Banxico 멕시코 중앙은행)는 연준이 금리를 발표한 다음 주에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10월 상반기 8.5%)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에 미국 중앙 은행의 0.75% 인상에 4년 연속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공식 금리는 미국의 3.75~4% 범위의 두 배 이상인 10%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실러는 페소화 강세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상당한 양의 돈이 멕시코 수출, 송금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지불 형태로 멕시코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준이 긴축 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약간 약세"라고 말했다.

실러는 "금리 인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미국에서)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터널 끝의 빛이 이제 보인다" 며 이같이 분석했다.

환율 전문가들은 Banxico가 이번 목요일에 예상되는 0.75% 이상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 정책 성명에서 공격적인 긴축 경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페소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페소가 달러당 19.2달러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개업체 벡터의 경제 분석 부국장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연준이 Banxico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페소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El Economista 신문 보고서에 인용된 Muniz, Siller 및 Monex 분석가 Janneth Quiroz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추가로 하락하면 페소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목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연환율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여 페소를 평가할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다.

영국 은행인 Barclays는 지난 달 말 페소 가치가 내년 말까지 1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와 대조적으로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지난 10월 초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 페소가 미국 달러에 대해 20% 절상될 수 있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페소는 2022년 경제 불확실성의 시기에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는 그린백에 대해 많은 다른 통화들이 기반을 잃은 상황에서도 달러 대비 5%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잘 작동하는 통화 중 하나였다.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죽어가는 이민자들

CBS 뉴스가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멕시코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850명이 넘는 이민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미국 회계연도는 미국 정부가 기록한 이민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였다고 CBS는 내부 국경순찰대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최소 853명의 이민자가 리오그란데(Rio Grande) 또는 미국 땅에서 불법적으로 입국한 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2021 회계연도에 국경 순찰대가 기록한 이전 기록인 546명보다 56% 더 높은 것이며,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많은 이민자들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다 익사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미국 남부 국경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있는 척박한 사막 지형의 극심한 더위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높은 국경 장벽을 오르려다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며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내륙으로 이동하는 트레일러 속에서 숨지는 사고도 상당하다. 가장 최근에 미국 역사상 가

장 치명적인 인신매매 사건으로 알려진 지난 6월에 트랙터 트레일러 안에서 53명의 이민자가 산소 부족과 더위로 인한 질식사 한 것과 같이 최종 안착지까지는 항상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경 수비대를 감독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대변인은 "멕시코에서 코요테(coyotes) 또는 폴레로(pollero)로 알려진 인간 밀수업자들이 이민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운반책은 약속과 달리 외딴 곳이나 위험한 지역에 이민자들을 버리고 있어 운좋게 구조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많아 이주민들을 울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있는 지형은 매우 극단적인데 여름에는 더위가 가혹한데 많은 지역에서 국경을 넘은 후 몇 마일을 걸어야 하는 사막 지역은 이들에게 최악의 난코스로 여겨진다.

이민자 정책 분석가들은 CBS에 "2022 회계연도에 853명의 이민자 사망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데이터 수집 제한으로 인해 과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록적인 사망자 수는 미국 당국과 체포된 이민자 간의 면담기록 수와도 일치하고 있는데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에 거의 240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건너간 후 체포되었으며, 이 수치는 두 번 이상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회계연도에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200만 명 이상의 이민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경 순찰대도 같은 기간에 위험에 처한 22,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구조했는데 이는 2021 회계연도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초당파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이민 및 국경 간 정책 상무 이사인 테레사 브라운(Theresa Brown)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하려고 하는 시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는 것이 더 위험해졌다"고 말한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밖에 없었다" 는 점을 지적했다.

많은 이민자 사망은 인신매매 운반책의 활동과 출신 국가의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기꺼이 떠맡는 사람들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북부 삼각지대 국가에서 온 많은 베네수엘라인, 아이티, 쿠바 및 중앙 아메리카인들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망명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를 경유해 입국을 시도하지만 결코 이들에게 미국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아 이같은 불행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스페인어 배우실 분

19년 경력의, 최고의 강사가 여러분의 스페인어 학습을 도와 드립니다

교수: Daniel Ibañez
경력: 관련학과 졸업, UNAM대 Cepe 학습
대상: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모두 가능
스페인어 자격시험(dele) , 학생들 숙제,
회화 등 스페인어 관련 개인 교습

문의: Cel. 5531272866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몬테레이 / 시티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취업비자 $10,000 ◆비자연장 $5,000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국적변경 $4,000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살인사건 은폐'에 화난 멕시코시티 시장, 해당 검사 고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멕시코에서 한 검사가 여성 사망사건 경위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7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사건 진실을 감추려 한 모렐로스 주 검사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수도의 수장이 다른 지역 검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의 발단은 8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달 30일 아리아드나 페르난다 로페스(27)씨는 멕시코시티에서 식사한 뒤 지인인 라우텔 씨의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연락이 끊겼다. 라우텔 씨는 나중에 경찰에 "로페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까지 봤다"고 진술했다.

이후 며칠 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멕시코시티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모렐로스주의 한 고속도로 길가에서 로페스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 사건을 맡은 모렐로스주 우리엘 카르모나 검사는 "시신에 외상 흔적이 없고 (그녀가) 과도하게 음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검사는 "시신을 살핀 결과 다발성 외상, 즉 몸 곳곳에 외력에 의해 생긴 손상 흔적이 다량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살인 사건이라는 뜻이다. 멕시코시티 검사는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검찰청 소속 자격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피해자 마지막 행적이 남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을 통해 한 남성이 시신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운반하는 장면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로페스가 들른 아파트의 주인 라우텔을 이날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셰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번 수사를 수행하는 것은 모렐로스 검찰청의 의무였다"며 "멕시코시티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여성 죽음과 관련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르모나 검사와 이 사건 관련자 간 연관성에 대해 법무장관실에서 감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멕시코에서는 성폭행 살해 등 성별을 이유로 발생한 페미사이드 사건이 지난 한 해 1천 건 넘게 보고됐다.

무고한 여성이 사라지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면서 최근 멕시코에서는 페미사이드 범죄자 형량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형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곳곳에서 '사건 은폐' 검사과 피의자를 성토하는 시위를 열었다.

El Chapo의 고향 Sinaloa에 '마약 밀매 박물관' 생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왕이자 전 Sinaloa Cartel 지도자인 Joaquin "El Chapo" Guzman의 생가에 "마약 박물관"이 곧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쿨리아칸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북부 시날로아 주의 Badiraguato 시장은 최근 El Chapo, Rafael Caro Quintero 같은 악명 높은 마약 밀매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물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마약 밀매 및 조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019년 미국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엘 차포는 두랑고와 치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Badiraguato 시의 작은 동네인 La Tuna에서 태어났다. Caro Quintero와 Esparragoza는 Guzman과 마찬가지로 Badiraguato에서 태어났고 Zambada는 인근 Culiacan 시 정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Jose Luis Lopez Elenes 시장은 Badiraguato 지역을 '인신매매범의 요람' 이라고 묘사하며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고 박물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 라면서 현 정부가 마약 박물관 설립을 수요했으며 심지어 대통령은 Badiraguato의 경제 발전을 통해 마약 밀매의 오명을 극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Sinaloa의 주지사는 마약 박물관이라는 아이디어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Ruben Rocha Moya주지사는 "나는 그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Badiraguato에 마약 밀매 박물관을 짓는 아이디어를 단호히 거부한다" 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시장의 아이디어가 실행된다면 박물관은 현재 건설 중인 지역 박물관내에 들어설 예정으로 '박물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된다. 마약 박물관 개설과 관련, 대통령도 "Badiraguato 시정촌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정부에서도 홍보에 나서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마약 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올해 초 "엘 차포의 흥망"을 탐구하는 행사를 주최한 라스베이거스의 몹 박물관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에는 1986년 국방부(Sedena) 시설 내 군인들을 위한 훈련실로 처음 지어진 나르코 박물관이 있는데 2002년에 박물관으로 개조된 바 있다. Museo del Enervante(불법 마약 박물관)에는 멕시코의 마약 전쟁 중에 압수된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서면 요청에 의해서만 국방부의 허가로 공개되고 있다.

멕시코로 이주하는 미국 시민들, 올들어 기록적인 숫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멕시코에서 살기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주로 짧은 휴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해 은퇴자들이 정착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 특히 젊은층에서 멕시코로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아직도 은퇴자들은 조용한 지방 소도시를 선호하고 있지만 젊은층들은 멕시코시티에 정착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멕시코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의 공식 이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전과 달리 젊은층이 많이 늘어나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멕시코 내무부 이민 보고서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8,412명의 미국 시민이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 수치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2010년에 나온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임시 거주를 허가한 미국인 중 1,619명(전체의 19%)은 멕시코시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1,515명은 주로 Puerto Vallarta, Chapala, Guadalajara 등 할리스코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멕시코시티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Claudia Sheinbaum 시장은 최근 더 많은 외국인이 수도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임시 거주자들에게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주는 칸쿤, 플라야 델 카르멘 및 툴룸을 포함하는 Quintana Roo다.

Los Cabos와 La Paz를 포함하는 Baja California Sur; Merida와 항구 도시 Progreso를 포함하는 Yucatan; 그리고 은퇴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San Miguel de Allende와 Guanajuato 시가 이들의 주 보금자리다.

2022년 첫 9개월 동안 영주권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2019년 5,418명 수준에서 48%나 대폭 증가했다.

소득증명이 되거나 비자를 후원하는 회사 고용주, 또는 멕시코인과 결혼 등, 외국인이 멕시코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거주자 수치는 관광객으로 입국했지만 다른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은 제외된 수치다.

이들 중 다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고용주가 도입한 새로운 원격 근무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에 정착한 경우도 있다.

멕시코는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지 그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많은 미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멕시코에 입국하고 이곳에서 삶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에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재입국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멕시코시티, 특히 로마와 콘데사와 같은 트렌디한 도심 지역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들에게 인기이며, 오하카 등 아직도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은퇴자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도의 특정 지역으로 디지털 유목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들로 인해 임대료를 인상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증가하는 숫자의 또 다른 원인은 가족일 수 있는데 멕시코의 2020년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5세에서 19세 사이의 미국 태생 어린이가 470,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많은 국가의 외국인들이 멕시코로 몰려들었는데 팬데믹 기간중에도 멕시코의 제한없는 멕시코 입국정책 등 개방성이 결과다.

지금은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멕시코를 관광과 이주의 목적으로 찾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같은 추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광대국 이미지와 함께 외국인들의 제의 삶의 터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불안한 멕시코 치안 문제도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만 가스전 개발을 위한 Pemex 프로젝트 승인, 본격 개발

국가 탄화수소 위원회(National Hydrocarbons Commission, CNH)는 Veracruz 해안에서 한때 포기했던 Lakach 심해 천연 가스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수정된 Pemex 계획을 승인했다.

Veracruz의 항구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멕시코만에 위치한 Lakach 유전은 총 9,370억 입방피트에 달하는 가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높은 비용이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Lopez Obrador 대통령이 "이 유전은 멕시코의 중요한 가스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일사천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CNH 관계자들이 미화 1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가진 Pemex가 이전에 포기한 벤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모두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미다.

국영 석유 회사는 미국 기반의 액화 천연 가스 회사인 New Fortress Energy와 함께 이 유전을 개발할 계획인데 CNH가 승인한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17억 9천만 달러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CNH 관계자 중 한 명은 "이번 투자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훨씬 더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Pemex가 심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 대통령에 의해 CNH 책임자로 임명된 前페멕스 고위임원 출신인 Diaz는 Lakach 프로젝트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Pemex는 개발되는 가스전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리스크도 상당하다.

미국 중간선거,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일간 레포르마지에 따르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멕시코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공화당이 상,하원 한 곳 또는 양원을 장악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미국 하원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5석과 36개 주의 주지사 선거가 모두 함께 치러진다.

만약, 공화당이 5석을 차지하면 하원을 장악하고, 1석만 더 얻으면 상원도 맡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무당파 선거 예측가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원 장악력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권자들이 국경 북쪽의 투표소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레포르마지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멕시코와 미국의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

멕시코 정부 관료 출신이자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위원인 로드리고 아길라 베니노스(Rodrigo Aguilar Bennicos)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마노두라'(politica de manodura, 정치적으로 엄격한) 정책이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정책 분야 중에는 이민, 국경 안보, 무역, 초국가적 조직 범죄 등이 포함되었는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멕시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의 법학 교수인 알바로 산토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수출품에 전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멕시코 정부가 이민에 대한 집행을 강화한 것을 떠올리며 "공화당의 승리는 멕시코에 [미국] 이주와 관련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토스는 또한 "공화당의 승리가 20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한 USMCA 협정을 근거로 에너지 및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미국이 USMCA에 따른 분쟁 조정 협의를 요청한 이후 멕시코의 국수주의적 에너지 정책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출을 둘러싼 양국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치분석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제나로 로사노는 "멕시코 정부가 민간과 외국 기업보다 국유기업을 우대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상,하원 한쪽 또는 양쪽을 장악할 경우 공화당이 멕시코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분쟁 위원회에 관련 해석을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 수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멕시코 수출품 중 하나는 불법 마약 뿐이다.

그러나 화요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은 지난해 수만 명의 미국인을 죽게 한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위해 멕시코에 강한 압력을 넣을 것으로 한 전직 미국주재 멕시코 대사가 예상했다.

이외에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더욱 엄격한 이민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블어 멕시코의 폭력과 불안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주지사 선거 결과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들 지역은 공화당 주지사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모두 국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을 통한 이민자들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멕시코 정부의 기존 정책들이 미국의 압력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지는 이유다.

세계태권도선수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멕시코서 개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세계태권도연맹(WT)는 오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센트로 아쿠아티코 경기장에서 2022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원래 2년마다 열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면서 2019년 맨체스터 대회 이후 3년만에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2개국에서 755명의 선수 및 난민 선수들이 참가한다. 난민팀 선수들은 WT 깃발을 단다. 남녀 8체급씩 총 16체급에서 최강자를 가린다.

한국은 남자부에서 54kg급 배준서(강화군청), 58kg급 장준(한국체대), 63kg급 김태용(대전광역시청), 68kg급 권도윤(한국체

대), 74kg급 장은석(용인대), 80kg급 박우혁(한국체대), 87kg급 이선기(전주시청), 87kg 이상급 강연호(수원시청)를 내보낸다.

여자부에선 46kg급 강미르(영천시청), 49kg급 강보라(영천시청), 53kg급 박혜진(고양시청), 57kg급 김유진(한국체대), 62kg급 곽민주(서울체고), 67kg급 김잔디(삼성에스원), 73kg급 이다빈(서울시청), 73kg 이상급 김효정(안산시청)이 출전한다.

치와와, 반도체 및 항공우주 산업 투자 유치 나섰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Chihuahua)주는 향후 5년 동안 8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항공우주 및 반도체 산업의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마루 캄포스 갈반(Maru Campos Galvan) 주지사는 미국에서 인텔, 보잉 및 기타 회사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치와와가 공급망에서 상위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치와와를 외국인 투자의 매력적인 목적지로 홍보했다.

목표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 제품 분야에서 이 지역의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치와와를 멕시코 최대의 대미 상품 수출국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치와와는 북부 이웃 국가에 연간 58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회의에서 Campos 주지사는 "Chihuahua가 반도체 및 항공우주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업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 패키지로 외국 기업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업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와와는 멕시코 항공우주 제조업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인재 개발 전략, 현지 공급업체 강화, 혁신 및 응용 기술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캄포스는 워싱턴 D.C. 순방의 일환으로 월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멕시코 국경의 점화 플러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에스테반 목테수마 주미 멕시코 대사는 "치와와가 미국과 접해 있는 전략적 위치에서 혜택을 받아 멕시코와 미국 간의 관계와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공통 목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9월에 미국은 멕시코가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북미로 칩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장려했다.

대사는 치와와가 텍사스 및 뉴멕시코와 고도로 통합된 지역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최첨단 항만, 철도 및 공항과 연결되어 있다" 며 이것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특한 제조 및 물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는 Intel, HP, Honeywell Boeing 및 Bombardier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주 정부의 미국 "치와와의 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곧 공개되는 바칼라 근처의 이치카발 유적지에 큰 관심

국립 인류학 역사 연구소(INAH) 소장인 디에고 프리에토 에르난데스(Diego Prieto Hernandez)에 따르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바칼라르(Bacalar) 석호로 가는 길에 고대 마야 도시 이치카발(Ichkabal 뱀의 도시)이 있던 곳이 곧 방문객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장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구원과 당국은 2023년 중반까지 관광객이 그동안 '숨겨진 보물' 로 알려진 이곳을 개방하는 것에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비교적 옛모습 그대로 잘 보존이 된 상태로 알려졌다.

도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정글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유적지는 현재 고고학 유적지 개선 프로그램(Promeza)의 일환으로 국립 고고학 역사 연구소(INAH)에서 발굴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남부의 많은 관광도시와 명소 근처에 정차할 통근 및 관광 철도 노선으로 공사 중인 마야 기차 노선을 따라 고고학 유적지가 연계되어 개발하고 있다.

Ichkabal은 조용한 시정촌인 Quintana Roo의 Bacalar 근처에 있는데 연방 및 주 공무원들은 만약 개방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달에 Promeza(유적지 개선프로그램) 계획은 유카탄에 설립된 Uxmal 고고학 유적지에서 고대 마야 비석을 발견한 바 있다. 철도 프로젝트의 Bacalar 역이 될 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Ichkabal은 고고학자 Enrique Nalda Hernandez와 Javier Lopez Camacho에 의해 28년 전에 발견되었지만 1930년대부터 이 지역의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Ichkabal의 발굴을 통해 최소 2,400년 된 5개의 건축물로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둘러서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치첸잇사(Chichen Itza)의 큰 쿠쿨칸(Kukulkan) 사원의 두 배 크기인 40미터 높이의 피라미드다. Ichkabal 피라미드는 테오티우아칸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와 유사한 기본 영역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크기는 마야인에게 Ichkabal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이전 사이트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도시가 마야 문명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 그룹 중 하나인 카아눌(Kaanu' l 뱀) 왕조의 기원 이라고 믿고 있다.

Ichkabal은 Quintana Roo가 수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 왔었는데 2016년에 연방 정부는 INAH를 통해 관광 명소를 준비하는 데 1,100만 페소 이상을 투자했다. 고전 이전 시대와 마야 문명의 붕괴(400 B.C.~A.D. 900) 사이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영속성을 보여주며, 이는 유적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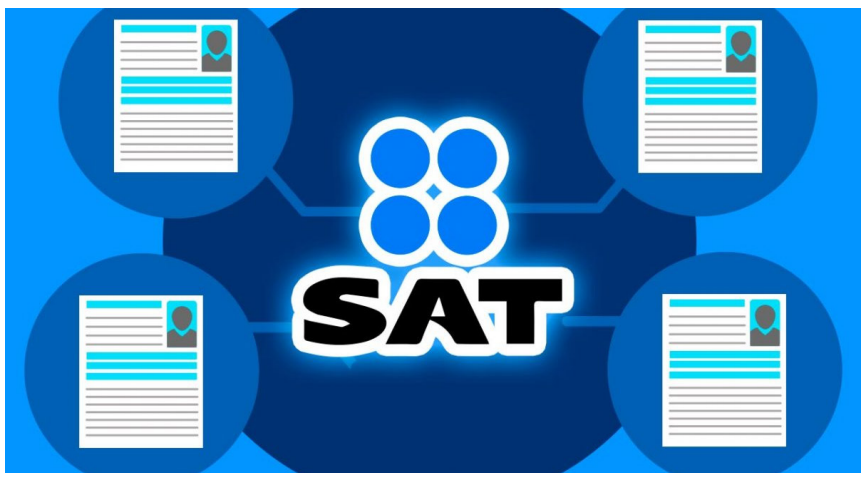
SAT, 새로운 디지털 급여 송장 구현 기한 내년 4월로 연장

공과금 등 다른 유형의 디지털 영수증은 예정대로 2023년 1월1일 기한

멕시코 국세청(SAT)은 전자 급여 계산서 버전 4.0의 의무 발행을 2023년 4월로 연기했다. 변경 사항은 원래 2022년 1월1일 이었지만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이다.

지난 11월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세청은 "급여 유형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납세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3.3 버전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4.0 CFDI 버전 발행에 대한 모든 세금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세금 규정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 전자 서명을 얻을 수 있는 기간도 같은 날짜로 연장했다. 그러나 공과금 청구서나 임대 영수증과 같은 다른 모든 유형



의 디지털 세금 영수증(CFDI)은 여전히 준수 기한이 2023년 1월1일 이기 때문에 연장은 급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2022년 세금 개혁의 일환으로 SAT는 2021년에 3.3(CFDI)을 최신 버전 4.0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데이트에는 연방 납세자 등록, RFC, 전체 이름 및 직원의 납세자 주소, 우편 번호와 같은 급여 영수증 수령인에 대한 새로운 필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멕시코 공공 회계사 협회는 "이러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으면 급여 영수증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바 권 규정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업데이트된 세금 정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직원이 SAT에서 세금 납부상태 증명(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을 발급받아 고용주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 문서에는 CFDI 4.0에 필요한 식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FDI 4.0은 2022년 1월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납세자보호법무관실(Prodecon)과 전국고용주연맹(Coparmex)은 CFDI 4.0을 의무화하기 전에 숙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SAT는 마감일을 4 번 연기했다. 처음으로 5월로 연장되었고 두 번째는 7월까지. 세 번째는 2023년 1월까지이고 마지막이자 현재는 2023년 4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정부의 선거 개혁에 대해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로 공정성 논란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INE)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선거 개혁법안 핵심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왔지만, 개혁신문 여론조사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같은 내용임에도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El Pais 신문이 입수한 INE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00명의 응답자 중 93%가 정당에 대한 공적 자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 조사 대상자 10명 중 거의 9명(87%)이 연방 의원 수를 줄이는 계획에 동의했고, 78%는 시민이 선거인단과 선거법정 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74%는 INE의 예산 삭감 움직임을 지지했다.

정부의 개혁안은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으로 이달 말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지난 9월 3개 민간 기업이 INE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나머지 3개 제안에 대한 지지가 다수였다.

응답자 10명 중 거의 7명(68%)은 더 많은 시민이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찬성했고, 53%는 주 기반의 선거 기관과 재판소를 없애자는 제안을 지지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52%)은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NE를 중앙선거자문위원회(INEC)라고 불리는 새로운 중앙집권적 권한으로 대체하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결과는 13%만이 INE를 해체하고 새로운 권위로 대체해야 한다는 Reforma 신문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난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레포르마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80%가 INE가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으며 71%는 INE의 해체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혁안에는 정당에 대한 공적 자금의 축소와 선거와 관련된 언론 홍보 예산의 삭감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여당 모레나당이 현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선거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개혁의 목적이 멕시코의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레포르마 신문의 조사에서는 10명 중 거의 9명(88%)이 "선거관리기관은 대통령과 정당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인 65%는 선거개혁이 2024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는데 61%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INE를 없애는 것이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만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의 주요 야당인 PAN, PRI, PRD, 시민운동은 물론 경제단체, 일부 시민사회단체, 가톨릭교회 등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INE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과 각료들, 모레나와 그 연합 정당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안된 정부의 개혁을 지지한다. 그 개혁안은 하원 정원 500명에서 200명을 줄여 300명으로, 300명의 의원 선출도 유권자들은 지역구별 투표가 아닌 정당별 투표를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당 지지도가 높은 현 여당이 절대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법의 네 가지 시사점

멕시코 하원이 가사도우미를 IMSS(멕시코 사회 보장보험)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부터는 가사도우미와 기타 가사 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

통상 집에서 청소나 잡일을 도와주는 가정부와 정원사 및 기타 가사 노동자는 노동권, 사회 보장 또는 적절한 퇴직 연금이 없어 그동안 국가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직업군 이었다.

새로운 법안은 의료에서 병가 및 근로자 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셈이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람을 위한 가사 노동자 노동 법안의 4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도우미로 간주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처음으로 마련됐는데, 법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통상 '가정부'로 통칭되고 있으며 청소, 보조 또는 가사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업무는 고용관계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가사도우미가 그 대가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급으로 육아와 가사일을 하는 어머니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는 한 명의 고용주가 있고 고용주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출,퇴근(De entrada por salida)을 하지만 한 고용주에 독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법안은 또한 호텔, 요양원, 레스토랑, 여관, 바, 병원, 요양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끔 또는 산발적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지원, 고객 서비스 및 기타 아날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사도우미로 간주,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2. 법률은 가사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사 노동자는 사회보장법이 제공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 보상, 장애 및 생명 보험, 노년의 퇴직 및 실업보험, 보육 보험 및 사회 혜택 등이다.

이들에게는 최소 주당 최소 1일이나 1.5일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하루에 9시간의 야간 휴식 , 매일 아침과 저녁 근무 사이에 3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사도우미가 고용주의 집에서 숙식(de planta)을 할 경우 일당에는 별도의 식비와 숙박비가 지급 되어야 한다.

만약, 가사도우미가 임신한 경우라면 IMSS 가입 첫날부터 진료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되며 출산 휴가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임신을 했을 경우부터 출산까지 최소 12개월 동안 주당 최소 30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한다.

3. 개정된 법률에서는 가사도우미 고용주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과 권리도 정의하고 있다.

고용주는 거주(de planta) 및 비거주(de entrada por salida) 근로자 모두에 대해 출근 첫 날부터 IMSS(사회보장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각 고용주는 IMSS 웹사이트에 가사도우미를 등록하고 합의된 일급 및 월 근무시간에 대한 조건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해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첫 1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해고를 할 경우 반드시 법적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이경우라도 해고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 즉, 별도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재복직 등 소송없이 고용관계가 그대로 종료된다는 의미다.

4. 온라인으로 급여 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다. 근로자(가사도우미)도 고용주도 별도의 임금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IMSS 웹사이트의 계산기가 작업을 대신 수행해 준다. 임금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위치(국경 근처에 거주하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근무한 일수 및 일일 급여만 입력하면 된다.

고용주는 주급이나 월급을 온라인 또는 지정된 은행에서 지급하고 이 내용를 등록된 IMSS에 제출해야 한다.

가사도우미가 둘 이상의 고용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각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일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Imss에 그 내용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가장 힘든 직종으로 저소득층, 또는 저학력자들의 3D업종으로 알려진 이들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것도 분명한 만큼,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상당하다.

즉, 가사도우미를 둘 정도라면 재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만큼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법조항으로 명문화 했다는점에서 취약계측에 대한 권리신장에 진일보했다는 노동계의 긍정적인 정치권에 대한 평가다.

Cempasuchil(금잔화) 꽃은 제단 장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올해 역시 '망자의 날' 을 기념하기위해 많은 가족들이 음식, 음료, 꽃을 들고 전염병 기간 동안 폐쇄되었던 묘지를 찾아 예전 풍습을 이어갔다.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여러 주에서 재배되는 cempasuchil(금잔화)은 무덤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전통 꽃 중 가장 보편적이며 고대부터 삶과 죽음의 순환의 상징이었다.

농업부는 이번 시즌에 2,700만 개의 식물이 수확되었으며 이는 20,245톤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멕시코 국내 생산자들은 남은 꽃을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추가 수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매 시즌, 수확에서 팔리지 않고 약 30%가 남는다.

Barcel 및 Sabritas와 같은 주요 회사는 꽃의 밝은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식품의 착색제로 사용하고 이 원료의 국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품질의 꽃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재배자에게 총 지불액의 25%를 선불로 지급한다. 금잔화는 8월에 파종하여 10월까지 꽃이 피도록 해 대부분 이때 판매가 된다.

엘살바도르, 수감자 동원해 갱단 조직원 묘비 부수고 무덤 철거

중미 엘살바도르가 폭력조직 흔적을 없애기 위해 갱단 무덤까지 철거하고 나섰다.

엘살바도르 교정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수감자를 동원해 전국 곳곳에 있는 공동묘지 등지에서 갱단 무덤 묘비를 부수고 망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커다란 망치와 쇠 지렛대를 비롯한 콘크리트·벽돌 파괴 장비를 손에 든 수감자들은 지난 1일 수도 산살바도르 인근 라리베르타드주 산타테클라의 공동묘지에서 마라 살바트루차 갱단원들의 무덤 묘비를 제거했다.

'MS-13'으로도 알려진 이 조직은 극도의 폭력으로 악명 높은 잔인한 갱단 중 하나다. 198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이민자를 중심으로 결성한 이 조직은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에서 주로 활동하며 마체테 등으로 잔혹한 살인·시신 오욕(훼손)·납치·인신매매 등 범행을 저질러 왔다. 2012년 미국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인근 콜론에서도 수감자들이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날 하루 철거된 묘비는 80여개다.

중남미 최대 전통 행사인 '망자의 날'을 맞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인 엘살바도르닷컴은 전했다. 갱단과 관련한 도심 그라피티(공공장서낙서)도 없애고 있다.

오시리스 루나 메사 법무부 차관은 "어떤 폭력조직원도 인정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덤을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나라에선 갱단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나이브 부켈레(41)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만연한 폭력 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장 없이도 갱단원을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사태 체제는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7차례 연장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중이다.

입법부에서는 갱단 가입만 해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최근까지 5만6천여명이 갱단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의적 체포 등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비상 체제 유지 방침을 당분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에 머무르자!" 니카라과서 지방선거 보이콧 움직임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중미 니카라과에서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유권자에게 투표장에 가지 말 것을 촉구하며 '선거 보이콧'에 나섰다.

니카라과 유력 매체 라프렌사에 따르면 자유헌정당과 자유연합 등 10여개 야당과 시민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일요일 지방선거일에 투표장에 가는 대신 집에 계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340여명, 수감돼 고통받는 정치범 200여명, 감옥에 있거나 망명중인 우리의 종교인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같은 외침은 야당에 대한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제대로 된 선거운동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다.

오는 6일 니카라과에서는 153개 지방자치단체장(임기 5년)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 야당 측은 정치 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정부 방침 등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후보를 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여당(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사실상 '들러리 야당 후보'를 내세운 상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투표 보이콧을 독려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수도 마나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유세 기간 거리 집회는커녕 변변한 후보 공약 포스터를 찾아보기 힘든 '조용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은 "이번 선거는 평화적인 시민운동의 하나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리했다. 투표율은 51.64%였다. 1985년 임기 5년의 대통령직에 오른 오르테가는 뒤이은 대선에서 연거푸 낙선했으나 2007년 재집권한 뒤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도 없앴다.

미스 푸에르토리코·미스 아르헨티나 "우리 결혼했어요"

푸에르토리코와 아르헨티나 출신의 두 전직 미인대회 우승자가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파비올라 발렌틴(22)과 미스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리아나 바렐라(26)는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다.

바렐라는 인스타그램에 10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며 "특별한 날을 맞아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던 우리의 관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둘은 2020년 태국에서 열린 국제 미인 대회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에서 처음 만나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발렌틴과 바렐라 모두 당시 대회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둘의 결혼을 축하하는 댓글 1만여 개가 달렸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2023년형 달력 주문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신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www.haninsinmun.com

A형 (3단 달력) : 1매 12장

싸 이 즈: 86cmX34.5cm　　금　액: $175 (상호 인쇄 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B형 (탁상용　달력) 싸 이 즈: 18cmX14.7cm　금 액: $80 (상호 인쇄 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C형 (1장짜리 달력) 싸 이 즈: 66cmX46cm　　금 액: $40 (상호 인쇄 포함)　최소 주문수량: 100매

주문시 선금 70%, 납품시 30% (별도 디자인 불가)　　**문의: 55-6709-4554**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내부 시설 공사 중, 10월 말 마무리 예정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단체 40석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 5514-8683,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매주 월요일은 휴무**

대한불교 조계종

1년 연중 연등접수中

멕시코 관음사

멕시코 관음사가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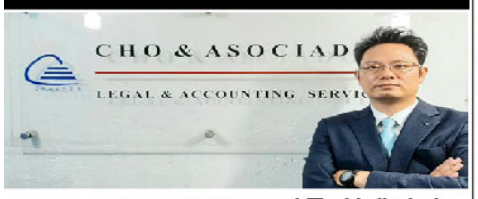
정기법회(주지 여산스님)
매주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관음사: 01-597-976-8747
휴대폰: 55-2716-0152
55-3983-6135

불교도는 물론 타종교인 및 무종교인의 템플스테이 가능합니다.
(동참금은자율보시)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Montepio 38 Salto del Aqua 20 Mexico Viejo Popo Park
C.P. 56983 Atlautla de Victoria Estado de Mexico

[조우현 변호사]



CHO & ASOCIADOS 법무·회계법인
www.choasociados.com

▣ 멕시코 한인 1 세 1 호 변호사 (2005 년) Cédula P. 4535342
▣ 멕시코 연방사법부(PJF) 인가 한국어-스페인어 통·번역사 P.0306-2020
▣ 국제통상법, 지적재산권법, 세법 전문과정 법학대학원 졸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NUAC) 자문위원 (13,14,15,16,19 현재)

▣ 법률서비스	▣ 세무관리서비스	▣ 법원통역 및 번역공증 서비스(한국어-스페인어)
❖각 분야 전문변호사 보유 -법인,지사,연락사무소 설립 및 청산,비자업무,노무관리,계약서 검토 및 작성, 정관관련 회사법 저작 권,상표권 및 특허출원, 중재 및 조정,형사고소, 각종 민사,채권,노무,행정,세무소송...	-회계기장 및 세금신고, 세금환급, 종합세무컨설팅, 재무 및 세무감사... ❖국세청 SAT 인가 세무 감사전문 세무회계사 보유	-법원통역 -각종 공문서 번역공증 예:출생,혼인,가족관계,졸업,성적증명서,회사정관,법원판결문 및 각종 공문서...

▣ 멕시코시티 본사	▣ 몬테레이 지사	▣ 연락처
Varsovia 53 Oficina 401, Juárez, Cuauhtémoc, Ciudad de México, 06600, México. (52) 55-5208-0208	Carretera Miguel Alemán KM 14.2, Local 33, Alianza, Apodaca, N.L. 66633, México. (52) 81-8345-0060	이메일: cho@choasociados.com 휴대폰: (52-1) 55-2109-5747 카카오톡 ID: ssdaddy77

소아청소년치과 & 성인치과

곽주영 치과
Dra. Kwak Clínica Dental

코로나19 대응 대책에 따른 곽주영치과 진료 안내

☑ 본원은 고로나19감염 방지와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고객님과 모든 직원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환자분을 모시기 전에 진료 체어, 타구대 등을 **알코올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환자분을 모시게 되어** 진료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AV. HOMERO #527, 101호 (SAN PABLO 약국옆)
진료 시간 월-금: 9am-12pm / 2pm-7pm (그 외 시간은 사전예약 바랍니다)
6838-7740, (55)1382-1929

龍島중식뷔페

"값도 싸고 맛도 좋다더라"

150명 수용
대형 연회석

32가지 음식
& 후식까지

친절한 서비스
각종 연회 환영(예약)

1인당 175페소 (3-8세 어린이 119페소) 디저트 포함

Calle. Londres No.169 (Londres y Florencia esq.)
Tel. 55-5208-5725
본점 Torres Adalid No.15 Col. Del Valle 인수르헨떼스 Poliforum 옆

Consultorio Médico SEUL

멕시코 한인병원

서울 클리닉

Grupo HAMECO S.A. de C.V.
원장 Dr. 문장호 (의학박사/전문의 : CEDULA No. 4155018)
내과 / 외과, 소아과 / 산부인과, 피부비뇨, 미용성형, 안방과

진료 시간	상근 진료 의사
평 일 9 : 30 am ~ 7 : 00 pm 토요일 9 : 30 am ~ 5 : 00 pm ※ 산부인과, 한방과 예약요망	Dr. 문장호 (소화기내과/피부비뇨기과) Dr. Juan M. Avalos (일반내과/가정의학과) Dra. Doris C. Jimenez (산부인과, 여의사)

외부협진 전문의
심장내과 Dr. J. Cesar Ayllon(Hosp. Espanol)
일반외과 Dr. B. Jimenez Bodadilla(Hosp. Santa Fe)
성형외과 Dr. J.L. Perez Avalo(Hosp. Obregon)
한방과 Dra. Jin Xuan (중의, 중국 정통침)

TEL. / FAX. (55)5208-5448
CEL. 55-1513-7716

※ 산부인과, 한방과 예약요망
공휴일은 전화 예약 바랍니다

일반진료, 건강상담, 수술상담, 응급처치, 예방접종, CO2 레이져, 점/검버섯제거, 자궁암검진 미용성형/비뇨기수술, 영양제주사, 위내시경, 임상병리, 학교진단서, 예방접종 번역, 각종 서류

Londres #227, Zona Rosa (Varsovia Y Praga)

우남 나비치과

최고의 한국 치과
의료술로 진료합니다.

최신 기술과 고급 치과 재료를 선택하여 좀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남 나비치과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국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멕시코 국립 미술 학교 I.N.B.A "La esmeralda" 수료
-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U.N.A.M 대 치과 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치과 보존학 Mini Residency 수료
- 댄티움 치주 임플란트 과정 수료
- 함병도 원장님의 I.P.I 치주 임플란트 과정 수료
- 강서구 최용현 STM 교정 치과 연구회 과정 수료
- 강남 최재영 얼굴 턱 미용 치과 연구회 정회원
- 최병건 한국 치과 치의학 임상연구회 정회원

진료시간 : 월,화,수 am 10:30 ~ pm 8:00 / 목,금,토 am 10:30 ~ pm 6:00

전화: 55)-5207-0026, Cel. 55-4882-2676
Copenhague 24, Juarez, Cuauhtemoc, 06600
Ciudad de Mexico, CDMX Zona Rosa

정통 침 타이완한의원

Clinica Acupuntura y Herbolaria DR.Chu

☞ 한약 다이어트 (14일분) $1,000페소(4킬로 빠짐)
☞코로나 바이러스19, 폐렴을 위한 한약
★한약 14일분 $1,500페소 ★7일분 $800페소

진료과목: ▷편두통, 스트레스, 신경통, 불면증, 주의력 결핍, 위장염, 대장염,위 역류성, 변비, 설사, 안면마비, 틱, 신경통, 감기, 천식, 정맥염, 기관지염, 마른기침,비강건조,루마티스, 관절염, 폐경기, 생리불순, 당뇨, 갑상선 기능저하, 성장통, 정맥류, 발부종=> 한약 14일분 $1,000 페소
☞한약은 진맥 후 제조 해드립니다.

침 진료: ▷두통 ,편두통,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 복통, 발바닥, 근막염, 좌골신경통, 안면마비, 신경통, 정맥두염, 섬유근통

주소: Articulo 123 Ext. 97 int. 103 Col. Centro a lado del Metro Juarez. CDMX Consultorio 55 2345 3199
Whatsapp 55-1425-4378 (Sra. Lan)

코리아타운 식품점

신선하고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프리미엄 종합 식품점, 코리아타운 식품점입니다!

◆ 가장 편리한 교통
◆ 가장 저렴한 가격
◆ 모든 것을 갖춘 종합 식품점

종로떡집

코리아타운 식품점이 종로떡집으로 떡을 다시 시작합니다.
각종 떡 주문 및 판매합니다.

백일, 첫돌, 생일, 환갑, 고희, 폐백, 이바지, 개업떡

Hamburgo No. 238, Zona Rosa
Tel 55-5514-6062, 55-5533-4686

수라상

한식 & 숯불구이 전문점

※ 퓨전 한정식 (2인 이상 가능)

*백합상(1인 $300)
〈14가지 식단〉
보쌈+불고기+월남쌈+잡채+야채샐러드+전+흑미밥+삼치조림+된장찌개+김치+떡갈비+연어회+새우튀김+과일

*편백상(1인 $400)
〈17가지 식단〉
백합상+구절판+갈비찜+베이컨아스파라거스구이

* 3시간 전 예약 필수! * 계모임, 각종 기념일, 손님접대에 안성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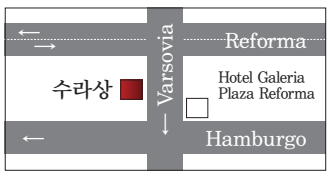
※ 특별 보양식 메뉴!
염소전골 대$800 소$600
한방오리백숙 $800
삼계탕 $300

※모든 메뉴 주문 포장 가능

※ FACTURA 발행
신용카드 결제 가능

수라상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Calle Varsovia No.13 Zona Rosa
Tel. (55)5511-7929 Cel. 55-4027-7137



코레아나 여행사

www.asiamextour.net

언제나 최고의 여행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55- 5208-1122/3

IATA KOREAN AIR ASIANA AIRLINES AEROMEXICO

항공권 발권
저가 요금,
편리하고 빠른 여정!
국내 외 출장티켓
한국 휴가티켓
아에로멕시코
한국 직항노선
저가 판매

여행 패키지
남미 여행
항공권, 호텔 등
유럽, 북미 여행,
성지순례(유럽),
북경, 하노이,
앙코르와트 여행 등
(하나투어 대리

차량/호텔 등
VIP 의전 및
각종 행사 지원
차량(기사 포함) 대여,
호텔 예약 등
★멕관광부(SECTUR)
등록 여행사

E. asiamex88@hotmail.com
T. 55-5208-1122/23, 8586, 8706
M. 55-5431-9292 또는 55-4095-

TALK Mex74, 1205oh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일품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멕시코 최고의 中食堂

짜장면...$150 군만두....$180
짬뽕.....$180 탕수육....$350

할인 세트메뉴
탕수육+짜장면2+음료수1 $440
깐풍기+짜장면2+음료수1 $420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확두라 발행, 카드결제

2인분 이상 주문시 소나로사 지역 배달해 드립니다

맥시코 유일 정통 중화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mgak

RESTAURANTE COREANO

Praga No. 54, Zona Rosa, Cuauhtémoc, C.P 06600, CDMX
Tel. 5511-2848 / 5511-3939 Cel. 55-1801-2313

영업시간:
11:30am-8:30pm
www.harimgak.com.mx

MONTERREY

"전 세계 모든노래, 마음껏 골라 부를수 있다"

新 개념 노래방

노~래~조

¡YA ABRIMOS!

최신 반주기로 스마트폰과 연결~~
유튜브 노래를 이제부터 노래방의 파워풀한
사운드로 즐길수가 있습니다!

-최신 반주기 모델로 최신곡 업데이트
-내장된 수록곡 이외에 전세계 어느곡 이든 검색해서 투사 가능

영업시간 : 월~목 19:00~01:00, 금~토 19:00~02:00 (시간 연장가능)
일요일 영업은 향후계획

예약문의 : 한국어 81-8686-9701 스페니쉬/영어 81-8686-9724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써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DIGA
INMUEBLES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산업용 대형창고 임대 및 판매

몬테레이와 살티요에 근접한 위치 소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의 대형창고
물류 창고에 대한 고민이 해결 됩니다.

최소 4,000 m^2 (1,200평)
최대 50,000 m^2 (15,000평)

사무실: 811-165-6005 / 812-584-9465

이메일: digainmuebles@gmail.com **홈페이지:** www.diga-inmuebles.com